

Green Kids 제 2 호

대전충남녹색연합 청개구리기자단

• 발행인 : 이상덕
• 발행일 : 2012. 1. 7
• 편집 : 박아령 자원활동가, 박은영 시민참여국장
• 제작 : 대전충남녹색연합
• 취재기자 : 권호담, 김세미, 김수연, 김주형, 김재연, 노지원, 박범수, 양규원, 오해찬, 이승현, 정서윤, 한광수

• 후원 : **해피빈**

•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0 창성빌딩 203호 • 전화 : (042)253-3241 • 전송 : (042)253-3244 • E-mail : daejeon@greenkrea.org • Homepage : www.greendaejeon.org

일본? 지진? 원자력발전소? 다 관련돼 있다!



www.encyber.com



연남뉴스

얼마 전 일본에 대규모 지진과 함께 쓰나미가 덮쳤었다. 전 세계는 크나큰 재앙 앞에서도 침착과 침착함을 잃지 않는 일본의 국민성에 감탄했었다. 그리고 며칠 후 일본의 원전이 위험하다는 뉴스와 함께 일본 전체가 방사능에 오염 되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이 뉴스를 본 후 자연재해인 지진이나 쓰나미보다 인간이 만든 과학문명이 붕괴 되면 더 큰 환경오염이 된다는 사실이 무서웠다. 체르노빌에서 원자력발전소에 문제가 생겨 대규모 방사능이 누출된 사고가 있었다. 그때도 전 세계는 방사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야기했지만 원자력의 편리성 때문에 그냥 묵혀버렸다. 그리고 올 해 일본에서 대규모 방사능 유출이 발생했다. 동경까지 세상에 오염되어서 인간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2011년 5월 기준으로 21기의 원전을 운전 중에 있다고 한다. 또한 8기를 건설 중에 있고 27기는 건설 준비 중에 있는 등 가히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만약이 중 하나만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나라 전체가 심각한 문제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생각만해도 끔찍한 일이다.

인간이 문명을 만들고 자꾸 편안함을 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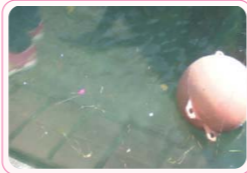
구하다보니 자연은 반대로 심각하게 오염되어있다. 자연을 지키고 보호해야하는데 자꾸만 인간만을 위한 발전만을 고집한 결과이다. 원자력발전은 비교적 안전하고 싸다는 이유로 세계적으로 많이 건설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발전소에서 나오는 폐기물과 오염물질은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

12월 우리 가족은 일본에 여행을 가기로 했다. 방사능 오염 때문에 취소할까도 생각했지만 남섬은 괜찮다는 엄마의 주장으로 그냥 가기로 했다.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에 가서 원자폭탄의 피해상황을 보고오기로 했다. 우리나라도 만들어지고 발전소도 갖는 등 위험하면서도 인간을 도와주는 지하자원이었다. 하지만 인간이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인간을 파멸로 이끌기도 하고 인간을 도와주기도 할 것이다.

TV에서 <강변만의 정글의 법칙>을 보면서 '인간은 자연 속에서도 아무것도 없이 잘 살아갈 수 있구나.' 하고 생각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제는 인간을 위하는 과학문명이기보다는 자연을 위한 과학문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글 | 한광수 기자(대전정림초등학교 6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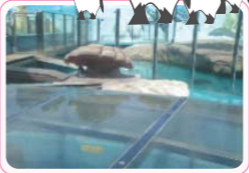
동물원, 이리도 도해?



곰 우리 수질상태



페어리도그 사육상태



펭귄 우리

이것은 제가 약 세달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은 페어리도그를 가까이에서 볼수 있게 하기 위한 일체 박스, 또는 원래 프레리도그들의 특성상 서로 좁은 공간안에 꼭 끼여있는 것을 좋아해서 박스를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많은 수의 페어리도그들이 층층이 쌓여 있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제가 실제로 귀여운 프레리도그들을 봤을때 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략 30마리 인품으로 될 것 같았었는데, 활발하고 장난기 있는 프레리도그들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밑에 있는 페어리도그들은 비좁게 끼여 있습니다. 아무리 끼여있는 생활을 좋아한다고 해도, 대략 30마리 정도의 페어리도그들이 이 좁은 공간을 다 돌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들어오는 페어리도그들 때문에 밑에 있는 페어리도그들은 나가고 싶어도 나갈수가 없습니다. 많은 수의 페어리도그들을 들어오게 해주려면 더 큰 박스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여러 곳에 설치할 해 놓는다면 더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물원을 한바퀴 돌다가 발견한 문제점이 2-3가지 정도 있는데, 우리 청개구리 기자단 기자들이 발

견한 것 중 TOP1이 펭귄입니다. 이 펭귄의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 보신다면 이 사진을 찍을 때가 여름이었는데, 아주아주 추운 남극에 사는 펭귄이 더위를 식혀려고 그늘에 있는데, 펭귄이 좀 더 지리다 보니 그늘 있는 부분이 머리에 닿아 편하지 않을 것, 또 남극에서 사는 펭귄의 온도를 맞춰주지 못하여 펭귄이 죽어가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또 이리사진도 있습니다. 먹이를 주지 말라는 경고도 있는데 사람들이 먹이를 주어 곰우리의 물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니다. 지푸라기와 비닐, 사람들이 쓰는 것들, 종이, 불어 터진 음식물들이 있었는데, 동물원의 규칙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동물원을 관람할 때 지켜야 할 예절이며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동물 한 마리와 사료에도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동물에게 주어서 동물이 잘못되기도 하면 큰 일이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이렇게 페어리도그 펭귄, 곰들의 여러 동물들을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것은 지킵시다!

글 | 김재연 기자(대전장지초등학교 5학년)



식초로 환경오염을 줄이자

제가 두 달전쯤 한 잡지를 보았는데 그 잡지에는 사람들의 세제, 샴푸 등의 과다사용으로 환경오염이 되고 있으니 세제나 샴푸 대신 식초를 사용하자는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글을 읽고 저는 식초 사용방법을 널리 알려져 사람들이 샴푸와 세제 대신 식초를 사용해 환경오염을 줄이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식초의 신 성분은 기름기와 단백질을 분해하는 성질이 있어 짜든 때 제거와 몸을 씻을 때 더없이 좋습니다. 먼저 짜든 때를 제거할 때 식초를 사용하는 경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오븐이 뜨거울 때 물 1컵에 식초 4분의 1컵을 섞어 오븐안에 넣고 뚜껑을 닫아 기름때를 씻어 후, 스팀으로 가열하면 오븐청소를 끝낼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물에 식초를 풀어 3분간 작동시킨 후 스팀으로 닦습니다.

둘째, 뜨거운 물에 식초 2분의 1컵과 주방세제를 약간 풀고 크리스탈잔을 담가 둔 뒤 부드러운 수세미로 닦아 행구면 사이사이 작은 먼지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싱크볼에 세제 짜꺼기와 기름 때가 엉겨 붙으면 식초 2큰술에 소금 1작은 술을 섞어 닦습니다. 더러워진 수도꼭지도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식초를 우리몸과 얼굴을 씻을 때 사용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욕조에 물을 채운 후 식초 반 컵을 부어주

세요. 물을 깨끗하게 해 주고 피로도 풀리고, 피부도 매끈해집니다.

둘째, 마지막 머리 행구는 물에 식초 3-5방울 정도 떨어뜨린 후 감으면 린스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세수대야에 끓는 물을 붓고 식초 5-6방울을 떨어뜨린 후 그 수증기를 얼굴에 쏘아주면 여드름, 뾰루지등 염증성 질환에 효과적입니다.

넷째, 세수할 때 행구는 물에 2큰술의 식초를 넣어 세수하면 비누의 알칼리성이 중화되어 피부가 가릴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제가 정리해 놓은 방법중에 크리스탈 (유리)를 청소하는 방법을 저도 체험해 보았는데, 유리의 반쪽만 식초물에 담가두고 반을 담가두지 않았는데 식초로만 닦은 부분이 세제로 닦은 것처럼 깨끗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식초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그 외의 방법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식초를 다양하게 이용해보고 환경오염도 줄여보는 것이 어떨까요?

글 | 이승현 기자(꽃피는초등학교 5학년)



대전시민들의 환경축제, “에코북페스티벌”

지난 2011년 6월 4일부터 한 달간 벌어진 녹색 책의 축제, 에코북페스티벌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대전 시민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알려주기 위해 에코북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지역 인사들이 추천한 환경 책과 환경 고전, 환경 주제 신간도서와 어린이 도서 약 170여 권들의 환경에 관련된 책들이 진열되었고, 개막일 당일 책을 구입한 사람들에게는 책 '의좋은 형제'와 함께 '의좋은 형제 쌀'이 증정되었다.

계몽문고와 한국가스공사 충청지역본부, 대전어린이도서관협의회, 대전시민아카데미 등에서 진행되었던 에코북페스티벌은 다양한 환경 책 전시와 함께 매주 토요일마다 재생종이로 책 만들기 아카시야 피마, 빛 그림 상연 환경 영화제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대전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을 증가시킨다는 대전충남녹색연합의 목적은 이루어진 것과 같이 에코북페스티벌은 많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페스티벌 참가자들은 이 페스티벌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책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이고, 문학 행사도 더 다양하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서진배 선생님은, 에코북페스티벌 참가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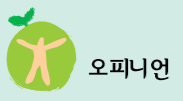


한 사람의 생각을 바꿔놓기도 하고 그 바뀐 생각은 행동을 바꾸고, 바뀐 행동이 주위와 지구를 바꾸는 첫 걸음이 된다고 생각해요. 환경운동 하는 단체들이 플랜카드나 소식지 등으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책을 통해서 생각을 키우는 방법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했다.

요즘 늘어나고 있는 환경 문제들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개최한 에코북페스티벌 이번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만이 아니라도, 많은 사람들이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다.

글 | 정서윤 기자(대전어은초등학교 6학년)

그린키즈 신문이 필요하신 단체나 개인은 연락주세요 (042-253-3241)
대전충남녹색연합 회원가입 문의 www.greendaejeon.org



오페니언

아나바다 운동 시민들 참여저조

- 시민들 아나바다의 중요성 몰라 -



시민들이 아나바다에 참여? 2011년 지금의 지구인들은 어떤 모습일까? 현대의 지구인은 지구를 더럽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현대의 지구인은 절약을 모른다. 현대의 지구인은 아끼기를 모른다. 현대의 지구인은 나눔을 모른다. 현대의 지구인은 바꿔 쓰지 않는다. 현대의 지구인은 다시 쓰지 않는다. 이렇듯 지구인 변화가 일어나고 아나바다 운동이 잘 실현되지 않고 있다. 아나바다 운동이란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운동을 말한다. 그러나 현재의 아나바다 운동은 잘 실현되지 않고 있다. 실현 되더라도 소수의 사람만 참여하고 있다. 왜 그럴까? 사람들은 이상한 미신 같은 것을 믿고 있다. 남이 쓰면 것을 쓰면 더럽다고 생각하고 남의 집에 살면 잡귀 같은 것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터러운 시민의식을 깨야 한다. 우리가 이런 낮은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으니 아나바다 운동에 불참하고 지구를 더럽히고 있는 것이다. 아나바다 운동은 IMF 때 시민들이 나라

를 살리자는 의미로 시작한 운동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라가 풍족해지지 아나바다 운동의 중요성을 잊어 가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불필요한 소비를 늘리고 있다. 아나바다 운동을 잘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나바다의 장점을 알아야 한다.

첫째, 아껴 써서 돈이 절약되고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든다.
둘째, 나눠 쓰니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셋째, 바꿔 쓰면 필요한 물건을 돈을 들이지 않고 구입할 수 있다.
넷째, 다시 쓰기 재활용으로 환경이 좋아진다.

이 네 가지 장점을 잘 기억하고 아나바다 운동에 참여한다면 지구는 훨씬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다.

글 | 김주형 기자(법동초등학교 6학년)

내가 제일 글 잘 써~

- 5월 글쓰기 수업 후기 -



2011년 7월 14일 대전충남북새언어원에서 두 번째 강의인 글쓰기 강의가 시작됐다.

창개구리기자단의 수업이 아이수업보다는 실내수업이 어렵고 생각거리가 많이 힘들었던 적이 많아 솔직히 기대를 많이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수업을 듣다 보니 선생님께서 수업을 참 재미있게 하는 것이었다. 여러가지도 많이 준비 하였고 여러 코너와 개그를 써서 열심히 수업을 하셔서 나도 열심히 수업을 들었다. 내가 가장 좋아했던 코너는 이야기 주사위 놀이인데, 내가 상함을 받아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다. 그리고 선생님의 이름이 서 진 배 선생님 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름을 가지고 놀리고 장난치듯 흔대지 않고 오히려 너희들의 상상력에 힘이 된다면 더 하라고 해 주셨다. 아마도 그 덕분에 정말 상상력을 발휘하고 글을 더 잘 쓸 수 있었던 것 같다. 또 이야기 릴레이 놀이와 판타지 동화 쓰기등도 재미있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아쉬웠다. 다시 한번 듣고 싶은 수업이었다. 그래서 직접 서진배 선생님을 인터뷰 해 봤다.

Q.선생님께서도 수업하실때 어떤 마음으로 수업을 하셨나요??

글쓰기는 생각을 더욱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키우는데 도움이 되고, 창개구리 기자단 친구들이 기사를 쓰면서 머리 속에, 마음 속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글로 표현되면서 환경에 대한 생각을 더욱 구체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키우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컸어요.



Q2.창개구리 어린이 기자단의 글쓰기 수업을 하셨을때 문제점이 있었다면 알려주세요.

- 기자는 발표 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창개구리 기자단 친구들 중에는 인터넷 앞에서 기사를 쓰지 않거나 싶은 글도 있었어요. 그리고 환경에 대한 문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것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시선이 아쉬웠어요.

Q3.끝으로 창개구리 어린이 기자단의 기사 쓰기 실력은 어떤지 평가 바랍니다.

글쓰기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은 어딘 듯 해요. 문장을 완성하는 기본실력들은 가지고 있다는 기초. 근데 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시선과 대상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노력인데, 이런 점을 키운다면 훌륭한 글을 쓰지 않을까 싶어요.

글 | 오해찬 기자(대전양지초등학교 6학년)

오메가3의 진실



오메가3는 등푸른 생선과 호두로 만든 것일까? 답은 아니다. 바로 하프물범의 고부포화 지방산으로 만든 것이다. 생후 12일부터 3개월까지 세계 하프물범이 그 대상이다. 대부분 머리를 방망이로 치거나 총으로 쏘 후 가죽을 벗기면 코트를 만들고, 나머지 것들은 오메가3를 만들거나 고기로

남녀노소 모두가 먹으면 건강에 좋은 오메가3! 요즘 오메가3의 효능이 알려지면서 오메가3를 사먹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런 오메가3의 효능을 알아보도록 하자. 인간에게는 영양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영양소 중 하나로 불포화 지방산을 꼽을 수 있다. 몸에서 만들어내지 못하니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한다고 한다. 오메가3는 두뇌 및 망막의 구성성분으로써 DHA와 EPA는 두뇌의 영양공급과 혈행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며, 게다가 혈액 속 지방이 만들어 지는 것을 막고 과잉 섭취한 지방을 연소 시키며, 염증을 조절한다고 한다. 평소 등푸른 생선과 호두 등과 같은 식품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좋은 영양소 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먹는 건강보조식품

쓴다. 하프물범은 순해서 사람들이 다가오면 놀지는 것 인줄 안다. 그런데 다가가면 죽이는 것이다. 지난 5년동안 백만마리 넘는 하프물범이 죽었고 그 가운데 97%가 새끼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에 주요 수입국였던 미국과 유럽에서는 거래 금지와 더불어 불법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꼭 약으로만 오메가3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생선으로, 호두로, 게다가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를 더 신선하게 많이 섭취할 수 있다. 현재 하프물범은 동물학대가 심해지고 있는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동물이다. 건강도 중요하지만 더 크게 보고 생각해 볼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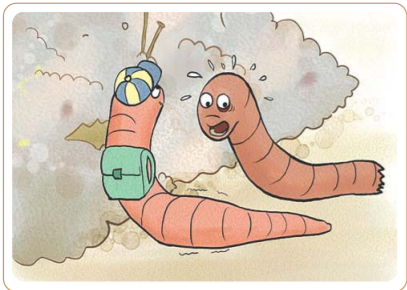
엄마 아빠께 오메가3 건강보조 식품 대신 고등어와 꽂치, 호두를 먹자고 말하면 어떨까?

출처 : 네이버 지식인 이름디2011년 9월호

글 | 김수연 기자(대전매봉초등학교 6학년)

붕구, 지렁이가 되어 지렁이의 소중한 느끼다!!!

- 지렁이 똥으로 이산화탄소 줄여 -



비 오는날, 붕구라는 아이가 지렁이의 소중한 모르고 지렁이를 괴롭혔다. 그래서 지렁이 할아버지가 붕구를 지렁이로 변하게 하여서 지렁이의 소중한 느끼게 해준다.

지렁이는 우리에게 징그럽고 더러운 생물이지만 붕구도 지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요즘 지구 온난화(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가 더워지는 현상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주범은 쓰레기, 매연 등이다. 지렁이는 땅이로 음식물 쓰레

기 등을 먹는다. 지렁이가 음식물 쓰레기를 먹으면 지구 온난화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지렁이의 똥은 토양을 거름지게 한다. 지렁이 똥은 일종의 거름이라고 볼 수 있다.

지렁이는 더 이상 징그럽고 더러운 벌레가 아니다. 우리 인간이 오염시키! 환경을 다시 좋게하는 환경 미화부 이다.

붕구는 지렁이의 소중한 느끼 깨닫고 현상으로 돌아와서 지렁이를 집에서 키운다. 화분에 넣어 키우면 화단의 꽃이 잘자랄 것이다. 그리고 먹이로는 음식물 쓰레기를 주어 음식물 쓰레기도 처리 할 수 있다.

지렁이도 환경을 지키는데 이제 우리 인간도 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글 | 김주형 기자(법동초등학교 6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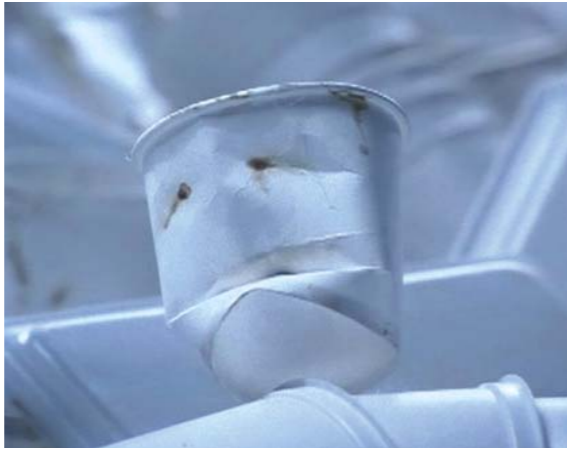




주장

늘어나는 일회용, 재사용 불가능한 지구

세상이 발달할수록 일회용품 사용량도 늘어나고 있다. 연간 일회용품 사용량은 대폭 늘고 있으며 비싼 생활을 하는 직장인 들은 배달음식이나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는다. 배달음식이나 패스트푸드 의 포장에도 많은 일회용품이 들어가고 나무젓가락이나 이쑤시개 같은 일회용품을 같이 배달 해 주기 때문에 일회용품 사용량이 늘어나 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리고 일회용품이 가격이 싸서 애용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회용품은 알그대로 1회용이기 때문에 사용기 간이 짧다. 그리고 값이 천만금 제작도 손쉽게 하기 위해 유해한 값싼 재료와 화학약품으로 제작과 표백을 하기 때문에 건강에도 그리 좋지 않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이 있는 일회용품, 우리는 결국 환경적으 로나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심각한 낭비를 하는 것이다. 게다가 일회 용품 중에서는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이 전체의 1/10도 채 되지 않을 만큼 적다. 그리고 일회용품 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중에서 대 표적인 것은 바로 종이컵 하지만 종이컵 5번 이상 재활용하면 폐기 되기 때문에 무한히 재생하지 못한다. 또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으로 만든 일회용품들은 소각이나 매장을 할 때에 환경호르몬을 내뿜기 때



문에 매장이나 소각도 좋은 방법은 아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 도 우리가 조금만 신경쓰면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 어 배달음식을 먹을 때엔 미리 나무젓가락이 필요 없다고 하거나 개인 용 젓가락이나 포크 등을 들고 다니는 것도 예일 수 있다. 또한 어떤 아기가 있는 집에서는 번거롭더라도 일회용 기저귀 보다는 천 기저 귀를 쓰는 것이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이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국가에서도 필요하다. 국가에서는 일회용품 줄이기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 법을 만들고 기업에서는 일회용품 생산 량을 낮추도록 유도해야 한다. 일회용품 사용량이 지금처럼 계속 올라 가게 되면 지구는 썩지 않는 일회용품 쓰레기 천지가 될 것이고 결국 그 결과는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상상이 안된다면 영화 '월드 배킹 을 생각해보자' 결국 결론은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런 문제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지는 것이다.

글! 오해찬 기자(대전영지초등학교 6학년)

생명을 살리는 땅 이용은?



우리는 수목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또한 골프장 건설로 인해 숲의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 대개 27홀의 골프장 1개를 만드는 데 훼손되는 산지 면적은 약 60만평이다. 그 면적의 산지에 사 는 생물종은 동식물 어림잡아 약 1천여 종이라고 한 다. 골프장 잔디를 유지하기 위해 온갖 농약을 쓰기 때문에 잔디 이외의 생명체는 살이갈 수 없다. 따 라서 골프장은 색깔만 녹색일 뿐 사실상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은 땅이다. 1991년 65개였던 국내 골프장은 2011년 현재 382개로 늘어났다. 올해 건설 중인 곳도 100개나 된다. 골프장이 이렇게 늘어나면 배경은 골프장구의 증가와 함께 골프장이 돈이 되는 사업이었기 때문 이다. 물론 사람들의 편의도 있지만 과연 이런 생태 계를 파괴하면서까지 이런 개발을 해야 하는가? 그 러고 꼭 골프장을 산에 지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골프를 하며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싶은 인간 이 만든 탐욕의 결과이다. 여론 조사기간의 결과에 의하면 골프의 장점은 대략을 나눌 수 있고 (20.6%) 비즈니스에 좋다(16.5%)는 점이 꼽혔다. 골프를 치 는 이유로도 골프 자체의 재미(27.4%) 못지않게 사 람들과 어울리기 좋다(20.4%)는 응답이 많아, 골프 가 친목 도모의 스포츠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 었다. 만일 이 이유라면 굳이 산법을 파괴하면서까 지 친목을 도모하며 골프라는 스포츠를 즐겨야 될 것인가?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해결방법을 함께 찾아야 한다. 끊임없이 자연의 생 태계가 보전되어야만이 결국에는 인간이 살 수 있 다는 것을 자각하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연 구해야 한다.

글! 권호영 기자(대전어은초등학교 6학년)

수질 오염의 주범은 나?!?



생활하수란 주로 집에서 음식을 하고 버린 음식물 찌꺼기와 설거지한 물, 세탁할 때 사용 하는 합성세제, 그리고 화장실에서 쓴 물 등이다. 사람들은 산업폐수가 가장 많이 오염시킨 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생활하수가 가장 큰 수질오염의 주범이다. 이 가운데서도 가장 큰 오염원은 분해가 잘 되지 않는 합성세제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활하수로 인해 받는 작 은 피해는 무엇일까? 일단, 우리는 깨끗한 바 다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하수 처리장에 서 물을 정화하기 위해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것

이다. 또한, 우리는 기형 물고기나 죽은 물고기 로 인해 식생활을 위협 받을 것이다. 이러한 피해들을 줄이기 위한 방법에는 무 었이 있을까? 첫 번째로 샤워 할때에 꼭 필요 한 샴푸나 비누사용 최대한 줄이기가 있다. 사 용을 줄인다면 수질오염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합성세제 대신 천연세제 사용하기가 있다. 천연세제는 합성세제와 달리 거품이 적고 분해가 잘 된다는 장점이 있다. 세 번째로는 기름은 종이에 흡수하여 버리고, 쓴뜨 물은 화장나 화분에 준다. 이렇게 한다면 기름 오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로는 세탁 기 돌리는 횟수 줄이기가 있다. 이것은 합성세 제가 많이 필요함으로, 횟수를 줄인다면, 수질 오염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불만하고 짜증 나도 이 방법들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더 나은 미래와 더 나은 수질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것이 다. 이제는 수질오염의 주범이 아닌 깨끗한 수 질 만들기의 주인공이 되보는 것은 어떨까?

글! 양규원 기자(대전어은초등학교 6학년)

위험에빠진 지구, 인류를 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작은 시작은 '캔들나이트'!

인류가 손쉽게 얻을 수 있는 화석연료가 무분 별하게 소비되고, 그 결과로 지구는 점차 자생능 려를 잃어가고 있다. 평행과 안정을 유지하고 있 었던 지구의 기후가 인류의 대량 에너지 소비로 인해 새로운 형태와 평형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 이다.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줄 일 수 있을까.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캔들나이트 운동' 이 있다. 캔들나이트 운동이란 현재 17개국에서 진행되 고 있고 2001년 미국의 에너지 정책에 반대하 는 '어둠의 물결' 운동에서 시작되었다. 그후 일 본에서 '캔들나이트'라고 이름 짓고 솔로우 리아프 운동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5년 6월 여성환경연대의 대안문화캠페인으 로 시작되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 캠페인의 정확한 방법은 '플러그를 뽑고 한박자 천천히' 라는 구호아래 비범하게 살아가 는 현대인에게 삶의 여유를 되찾고 주변을 돌아보 면서 자연의 속도에 맞춰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여 지구온난화와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한편 가장 기본적인 전기 플러그를 뽑고 잠시나마 시간과 행동의 주 인이 되보는 것이다. 한 나라의 모든 가정에서 TV, 비디오, DVD

등등 흡혈귀처럼 전기를 빨아먹고 있는 온갖 가 전제품들을 끄고 촛불만 켜면 선풍 화력발전소 18개를 운영 수 있다고 하는데 작은 행동이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예이다. 인류가 에너지를 사용할수록 대기 중엔 인류 의 생명을 위협할 온실가스인 이점 증가할 것 이다. 하지만 이런 캔들나이트 운동과 뜻을 달리 고 같이 하면 지구 온난화를 늦추거나 또는 해 결할 수 있지 않을까? 기온이 6도 상승하는 최악의 상황이 외도 모 든 생명체가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극심 한 지구 온난화로 지구는 상상을 초월하는 세상 으로 변할 것이다. 과학자들은 2020년 공표된 대 답을 내놓는다. 강현하기 전에 알 수 없으며, 영 영 몰랐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산업 혁명을 통해 화석 에너지를 슬기롭게 사 용하는 방안을 깨우친 인류인 만큼, 다가오는 지 구온난화 문제에 환경혁명을 통해 지혜롭게 대 처할 수 있으리라 예측한다. 그 환경혁명의 첫 발걸음은 캔들나이트 운동으로 나는 본다. 전기 면서 자연의 속도에 맞춰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여 지구온난화와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한편 가장 기본적인 전기 플러그를 뽑고 잠시나마 시간과 행동의 주 인이 되보는 것이다.

글! 김세미 기자(대전천동초등학교 6학년)

메인메뉴는 질소, 사이드메뉴는 과자..?!



과자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과자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있는데!! 봉지 안에 질소를 넣는 것은 과자가 부스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정작 봉지를 열면 과 자는 조금밖에 없는 것을 확인할 수있다. 봉지안에 든 질소는 거의 3분의2를 차지하고 있다. 너무나엄 이 큰 포장부터 부피만 늘리는 과자 포장의 비밀이 밝혀졌다. 6월 22일 방송된 MBC '불만제로'에서는 과자 포장의 내용물에 비해 지나치게 커 불만이라는 제 보를 받고 과자 포장의 상태를 파헤쳤는데 과자 포 장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봉지?과자를 무작 위로 선정해 앙을 실패했다. 그 결과, 내용물이 포 장지의 반에도 못 미치는 과자들이 상당했다. 알고 보니 안에 비해 2배이상 터무니없이 컸던 이유는 바 로 질소 충전이었다. 여러 봉지 과자를 대상으로 현 재 제품 크기의 봉지와 그보다 작은 봉지에 제품을 담고 질소를 충전한 뒤 30초간 일정한 충격을 가했 다. 실험 결과, 두 개?모두 파손율은 비슷했다. '그 령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과대포장을 하는 이유는 결국 더 많이 보이게 하고 값을 올리기 위한 변명

이라고 밖에 생각 할 수 없다. 이러한 과대포장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상당하다. 그 중 몇 사람을 인 터뷰했다. '과대포장 때문에 짜증이났다', '과자가 조금이라서 화가났다'가 대부분 이었다. 이러한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쓰레기로 환경을 해 손한다. 과자 박스를 만들기위해 나무를 자르고 봉 지들을 버려서 쓰레기가 넘쳐난다. 많이 팔기위해 한 과대 포장은 환경도 훼손하고 소비자들의 마음 을 허나게 만들었다. 소비자들은 항상 제품의 포장과 크기를 본다든사 실! 하지만 소비자들도 제품을 꼼꼼히 살펴 과대포장 이지 않은지, 그리고 과대포장의 문제가 있다면 앞 에 말한 고발프로그램에 제보하여 해결될 수 있으 록 우리의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하다고 본다. 나는 더 이상 질소를 사지 않고 과자를 많이 샀 으면 좋겠다.

글! 김수연 기자(대전매봉초등학교 6학년)

오 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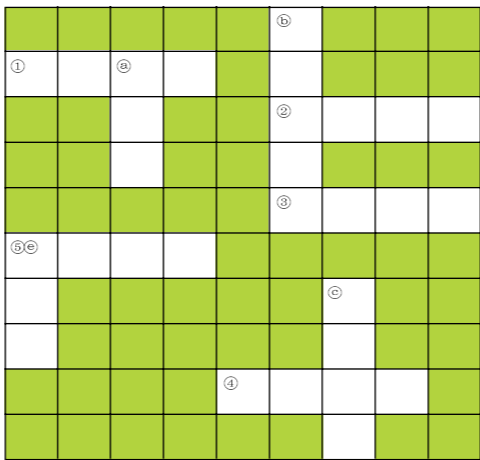
대체 에너지 OX 퀴즈~

1. 대체 에너지의 종류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이다.(O, X)
2. 수소는 대체 에너지이다.(O, X)
3. 대체 에너지는 화석 연료에 대신할 수 있는 에너지이다.(O, X)
4. 풍력은 대체 에너지 중에서 가장 비싸고 어렵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O, X)
5. 수력은 흐르는 강물을 억지로 막아놓은 댐 때문에 주변의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어 문제이다.(O, X)
6. 파력은 수력발전소와 달리 댐을 만들 필요가 없다.(O, X)
7.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우라늄이라는 금속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든다.(O, X)
8. 지열 에너지는 아주 깊은 땅속의 뜨거운 열을 에너지로 이용하는 것이다.(O, X)
9. 바이오메스는 대체에너지에 속하지 않는다.(O, X)
10. 원자력발전이 이산화탄소 발생이 많다.(O, X)

- 정답은 맨 하단에

만든이 | 권호담 기자(대전어은초등학교 6학년)

십자말 퍼즐



가로 열쇠

- ① 자원 개발로 인한 자연의 파괴와 각종 교통 기관이나 공장에서 배출하는 가스나 폐수 또는 농약 따위로 동식물이나 인간의 생활 환경이 더럽혀지는 일
- ② 대기를 가지고 있는 행성 표면에서 나오는 복사에너지가 대기를 빠져나가기 전에 흡수되어, 그 에너지가 대기에 남아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
- ③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같은 지하매장 자원을 이용하는 연료
- ④ 인위적 발생원에서 배출된 물질이 생물이나 기물에 직접적으로 해를 끼칠 만큼 다량으로 대기 중에 존재하는 상태
- ⑤ 자연환경과 조화되며 자원과 에너지를 생태학적 관점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건강한 주생활 또는 업무가 가능한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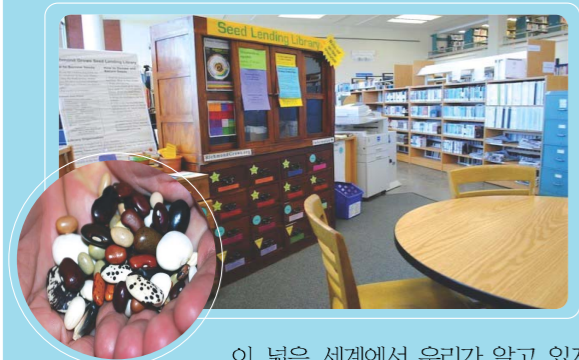
세로 열쇠

- ⑥ 오존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대기층. 지상에서 20~25km 상공이며 인체나 생물에 해로운 태양의 자외선을 잘 흡수하는 성질이 있다.
- ⑦ 지구의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
- ⑧ 인위적인 요인에 의하여 자연 수자원이 오염되어 이용 가치가 떨어지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현상
- ⑨ 어느 환경 안에서 사는 생물군과 그 생물들을 제어하는 제한 요인을 포함한 복합 체계

만든이 | 정서윤 기자(대전어은초등학교 6학년)

토막 지식

씨앗도서관이란?



이 넓은 세계에서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한 것들은 아주 많다. 씨앗도서관은, 말 그대로 씨앗을 빌려주는 도서관이다. 우리나라에 없는 그 씨앗도서관이, 바로 미국에 있다. 그 지역에서 자라는 다양한 꽃, 채소, 과일, 등의 씨앗을 빌려주는 씨앗도서관... 그 씨앗도서관을 영어로 줄여서 < BASIL PROJECT > 라고 한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은 처음에 무료로 빌려간다. 그리고 정성껏 가꾼 후 그 다음 해에, 빌려간 씨앗 만큼 또는 그 이상 원하는 만큼을 반환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씨앗도서관이 생긴 이유는?

간단히 말하면, 전통 종자를 보호하려고 생겨난 것이다. 물론 환경파괴로 멸종위기에 놓인 식물들은 물론이고 지난 20년간 대부분의 지역 씨앗 회사들이 문을 닫거나 다국적 씨앗기업(ex. 몬산토)에 합병되어 유전자조각 씨앗으로만 농사짓게된 상황을 해결하고자 한 노력때문이었다.

다국적기업은 지역의 토질상황과 농부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강제로 환경뿐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다국적씨앗은 유전자조각으로 과실은 크고 훌륭하지만 일회성 열매로 다음해에는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매년 구입을 해야한다. 그래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여 도서관 운영을 하게 된 것이다.

우리 주변에도 도시 곳곳에서 텃밭을 가꾸시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만약 우리나라에도 씨앗 도서관이 생기면 그런 분들께서 쉽게 참여 할 수 있을 것 같다.

씨앗도서관으로 좋은 식물들을 직접 내손으로 키우고, 체험하는 좋은 기회와 믿을 수 있어서 좋은 영양과 배고픔으로 해소 할 수 있는 것같기 때문이다.

우리 동네에도 씨앗 도서관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용하면서 나도 씨앗을 빌려서 씨앗을 심고, 키우는 경험을 해보고 싶다.

글 | 노지원 기자(대전지족초등학교 5학년)

OX퀴즈 정답 1. X 2. O 3. O 4. X 5. O 6. X 7. O 8. O 9. X 10. X

기자단 활동 정리



4월 9일 : 오리엔테이션
대전충남녹색연합 교육실에 참가구리 어린이기자단 오리엔테이션이 열렸습니다. 영화관람과 단체소개 및 축하인사, 기자단 자기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모두 모두 반가웠어요!



4월 23일 : 첫 번째 수업
유아이뉴스의 실무상 기자께서 기자라는 직업 태도, 기사분석과 기사작성방법, 팁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료를 알아가는 시간도 가졌고, 기자로서의 나를 생각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5월 28일 : 두 번째 수업
재밌는 글쓰기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사진배(대전시간이아카데미) 선생님께서 강연을 해주셨어요. 놀이하듯 재밌게 했습니다. 아예 자신있게!



6월 25일 : 세 번째 수업
우천관케로 부득이하게 실내수업으로 변경되었어요. 이번 사진촬영수업은 복원승 선생님께서 진행해주셨습니다. 사진기의 유래와 역사를 시작으로 사진의 중요성을 재밌게 설명해주셨죠. 그리고 환경에니메이션 '자람이 땅을 보고 기사쓰기를 했습니다.



7월 23일 : 네 번째 수업
대전충남녹색연합 박은영 국장님 진행 아래 '동물권에 대해 공부'를 하였습니다. 동물권의 의미와 영화(제목은 '돼지가 있는 교실(한국어 제목으로는 '짱은 내친구)'이라는 일본영화) 관람 후 토론도 함께 하였습니다.



8월 27일 : 다섯 번째 수업
지난 '동물권'수업을 바탕으로 대전오월드 동물원을 직접 가보고 동물권이 반영된 환경에서 키워지고 있는지 취재에 나섰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취재를 하면서 예리하게 문제를 짚어내는 것을 보면서 매일 성장하는 청계구리 친구들이 참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9월 24일 : 여섯 번째 수업
직접 어니버(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기)를 체험해 봤습니다. 필요없게된 물건을 팔면서 얻는 이익에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지만 '재활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눈앞에서 가치를 얻어가는 물건이 신기하게 느껴졌던 시간이었습니다.



10월 22일 : 일곱 번째 수업
신문기획과 기사를 누가 쓸지를 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료와 1년동안의 활동을 생각해보며 주제를 정했지요. 토론의 토론을 거쳐 어렵게 정한 기사주제와 초안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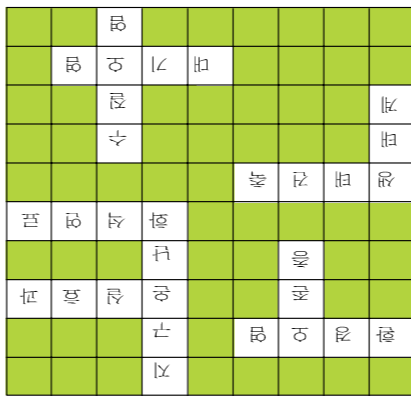


11월 26일 : 여덟 번째 수업
편집회의 및 원고투고를 했습니다. 도오주신 분은 대전시간이아카데미의 사진배 선생님이십니다. 친구들의 대부분 글은 참신하고 재밌다는 평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제목은 조금은 평이하거나 없었는걸. 점정보의 출처를 제대로 밝혀지고 약속하고 최종 마무리를 했습니다.



2012년 1월 7일 : 수료식
청계구리 기자단들의 총 정리의 장이 열릴 예정입니다. 1년동안 고생한 친구들 모두에게 박수를! 짹 짹~

십자말 퍼즐 정답



이 인쇄물은 숲을 살리는 재생용지(중질지 70g)로 만들었습니다.